

“폐기물 소각발전시설 설치 ‘안될말’”

전주시, 동산·혁신·팔복동 주민들 상대로 고형연료 발전시설 대응 주민설명회 “개발행위제한구역 지정 등 행정력 동원할 것” 추진상황·향후 대응계획 설명

전주시가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팔복동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해 이 지역 주민대표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폐기물 소각발전시설이 팔복동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대응할 뜻을 밝혔다.

시는 지난 31일 동산동 주민센터와 혁신동 주민센터, 팔복동 주민센터에서 차례로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설명회를 갖고 “팔복동 고형폐기물(SRF) 소각발전시설을 저지하기 위해 해당업체의 허가신청 연장을 불허하고, 개발행위제한구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고시 등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폐기물소각시설을 막기로 했다”며 그간의 추진상황과 향후 대

응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법률적 대응의 경우 주민대표와 시민단체, 변호사와 힘을 합쳐 공동 대응에 나서고, 소송에 승소하기 위해 변호사를 보강하는 등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국가적 이슈가 되고 있는 고형폐기물(SRF) 소각시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국회 등 정치권에 환경오염발생 업종의 매입·이전·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대정부 결의안 채택을 촉구하고,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한 전주시·전주시의회 결의안도 채택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공업단지 환경오염에 대

한 철저한 지도·단속과 상시 대응을 위한 환경대기관리 전담부서도 신설할 예정이라고 이 자리에서 밝혔다.

앞서, 시는 그동안 폐기물발전시설 업체가 요청한 인·허가 사항에 대해 △발전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부결 및 공사중지명령 △건축법 위반에 따른 건축허가 취소처분 및 공사중지 명령 △건축 증축허가 불허가 처분 △폐기물 처리업 허가 신청 연장 불가 통보 등을 통해 거부해왔다.

이와 관련해 김승수 전주시장은 “팔복동 인근 주민 등 시민들과 환경단체, 지역 정치권 등과 함께 힘을

모아 시민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폐기물 소각발전시설이 팔복동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더불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도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의 불안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제가 된 팔복동 소각발전시설은 지난 2016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시에는 발전시설이 아닌 자원순환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같은 해 11월 공사에 착수했다.

이후 이 업체는 자원순환시설이 아닌 고형연료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시설로 전주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발전시설) 결정을 요청했지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돼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송효철 기자

가든시티, 전주형 정원문화로 채운다

전주시, 팔복예술공장서 조정전문가 초청 ‘생태도시 사람들 이끌림 교육’ 실시

전주시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전주만의 정원문화를 만들어서 천만그루 가든시티를 채워나가기로 했다.

전주시는 지난 31일 덕진구 팔복예술공장에서 시 산하 토목·건축·지적·녹지직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태도시 사람들 이끌림 교육을 개최하고 조정전문가와 함께 조경과 정원을 중심으로 생태도시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든시티와 가드닝의 의미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교육에는 국내 조정분야 전문가인 안명준 조경사공연구소 느티 소장을 강사로 초청 ‘가든시티 전주를 위한 우리시대 정원’과 정원 문화 생활을 주제로 강연했다.

특히, 안 소장은 전 세계적으로 시민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는 다양한 정원문화 사례를 통하여 천만그

루 가든시티 조성을 통한 전주시의 미래상에 대해 소개했다.

안 소장은 이 자리에서 “생태와 기억, 참여, 지속이라는 아름다움의 주제와 방향은 정원을 통해 종합적으로 체험되고 발현된다”며 “그것은 공원과 같은 공적인 공간이 아니라 정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방치된 토지를 가드닝에 활용하는 ‘아방가드닝’ △버려진 땅을 꽃밭으로 만드는 ‘게릴라가드닝’ △홀리스가드닝 △커뮤니티 가드닝 △공공정원 등 전세계에서 펼쳐지고 있는 다양한 가드닝운동 사례와 함께 국내에 조성된 전통정원과 주택정원, 공동체정원 등을 사진과 함께 설명함으로써 이해를 도왔다.

/송효철 기자



남부시장 천변 주차장의 벽면을 멋지게 시민법인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31일부터 1박 2일 동안 전주 남부시장 천변 주차장의 벽면을 꾸미는 벽화봉사활동과 한옥마을, 팔복예술공장 등 전주시의 문화지역 탐방을 함께 즐기는 볼런투어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도내 겨울철새 도래... 전북도, AI 특별방역

(141종 2만7037마리)

내년 2월까지 도·시군 등 24곳에 방역상황실 설치

최근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주요 습지를 조사한 결과, 전북지역에 총 141종 2만7,037마리의 겨울철새가 도래한 것으로 확인되어 방역당국은 긴장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만경강 하류(1만7,281마리), 만경강중류(3,360마리), 동진강 하류(3,240마리), 동립저수지(1,925마리), 금강호(838마리), 전주천(393마리)의 순으로 많이 도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월 이후, 전국 5개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원에서 저병원성 H5형 AI

항원이 검출되었고, 그 중 1건은 전북 만경강 지역에서 채취한 분원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내년 2월까지를 AI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선제적 방역조치를 위해 도, 시군, 동물위생시험소, 농협 등 24개소에 가축방역상황실을 설치 24시간 연락체계를 가동 중에 있다.

/김진성 기자

전주시, 공공비축미 1464톤 매입

전주시가 쌀값 안정을 위해 2018년도 공공비축미곡 매입에 나선다.

시는 오는 5일부터 평화2동, 삼천3동 등 4개동을 시작으로 이달 중순까지 전주농협 모악창고와 북전주농협 삼덕창고 등 4곳에서 2018년산 공공비축미곡 1,464톤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지난 31일 밝혔다.

올해 매입품종은 신동진·수광의 2개 품종으로 매입물량은 지난해보다 15.4% 감소했다. 이는 올해 공공비축미곡 매입 배정기준이 예년과 달리는 타작물 재배실적이 신실·반영된 데 따른 것으로 참여 실적이 높은 다른 시·군에 비해 전주시 배정물량은 다소 감소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공공비축미 구매시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외 비수매 품종을 막기 위해 품종검정제도가 최초로 도입된다. 품종검정제도는 비수매 품종(DNA 검사)을 실시해 계약서에 기재한 품종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매입대상 농가 중 5%를 표본 추출해 시료를 채취하고, 민간검정기관에서 검정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위반농가는 향후 5년간 공공비축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대금 지급도 올해는 우선지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확기(10~12월)산지쌀값을 반영해 12월중 확정되면 연말에 지불 예정이다. 단, 1포대당 3만 원의 중간정산금은 농가가 수매한 달의 말일에 지급해 농가에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공급할 계획이다.

/송효철 기자

청년건강검진 한단계로 'UP'

전주시보건소, 내년부터 맞춤형 희망검진 추진키로 비만측정·빈혈·고혈압·공복혈당 등 확대 실시

전주시의 청년건강검진사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다.

전주시보건소는 청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내년부터는 기초건강검진과 정신건강, 비만, 금주, 절주 등 청년들의 5대 건강문제에 집중해 맞춤형 청년희망건강검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 31일 밝혔다.

청년건강검진사업은 김승수 전주시장의 지난 민선6기 청년·대학생 관련 대표적 공약사업으로, 시는 앞서 지난 2015년부터 매년 무료 건강검진을 통해 학업과 취업준비 등으로 인해 의사각각대에 놓인 청년들의 건강을 돌봐왔다.

새롭게 시행될 전주형 청년희망검진사업은 기존의 청년건강검진과 달리 청년들이 원하는 검사항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연 2회까지 수시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보건소는 또 검진항목도 △비만측정 △빈혈 △고혈압 △공복혈당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영양과잉 및 결핍, 운동 부족 등으로 인한 청년들의 성인병 예방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신건강과 비만, 금연, 절주 등의 특화된 건강검진사업을 대학교

등 직접 청년들이 활동하는 현장을 방문하여 상담과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보건소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취업과 학업, 생활의 3대 어려움으로 인해 주로 발생하는 청년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보다 꼼꼼히 살피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심층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대학교와 고시학원, 직업학교 학사 관계자 등과 협의한 뒤 학생회 및 학사 일정과 연동해 ‘찾아가는 청년건강공감 간담회’를 열고 청년들의 건강문제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 적용방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와 달리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됐던 전국 대학생과 청년 구직자 등도 내년부터는 전주 지역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검진항목은 비만과 고혈압 등으로 2년에 1번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청년 세대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40대 이상만 적용됐던 정신건강검진도 20~30대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